

‘장성 방문의 해’ 추진... 지속가능 성장 주력

장성군,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사업 370건 논의 수정·보완 역점현안 45건·신규현안 73건 등 “1000만 관광객 시대 앞당길 것”

장성군이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370건의 주요 사업을 논의하고 주요 공약 사항들을 점검했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주요사업에 관한 부서별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약 31건, 역점현안 45건, 신규현안 73건, 일반현안 221건 총 370건의 사업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사업계획은 △아이돌봄 돌봄교육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교육발전 특구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황룡

전통시장 특성화 △농촌중심지 활성화·기초생활거점 조성 △외식산업개발원 운영 △귀농귀촌체류형지원센터 조성 △가축우시장 건립 △신규소각시설 설치 등으로, 해당 사업 계획에 대한 추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2025년 양대체전 개최와 맞물려 운영할 계획인 ‘장성 방문의 해’ 추진에 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명품숲 투어 어게인 △황룡정원 불꽃놀이 라이브쇼 △방문의 달 집중이벤트 △핫플레이스 스탬프투어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관광자원을 알리고 방문객 유치에 도모할 방침이다.

장성호관광지를 사계절 관광명소로 만드는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와 사찰음식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K-사찰 음식 관광 명소화 사업’, 상무평화공원 사계절 복합놀이시설 조성사업에도 주력해



지난 23일 장성군이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장성군 제공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수렴·보완해 군민과 함께 성

장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장성 역사에 남을 특별한 한 해 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함평군, 월야실내체육관 문 열어 편리한 체육환경 제공

함평군은 지난 24일 월야면 월야리 일원에서 월야실내체육관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이남오 함평군의회의장, 박종희 함평군체육회장, 모정환 전남도 의원, 월야면 유관기관, 사회단체 대표, 군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새로운 체육 시설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월야실내체육관 준공은 지난 2021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본격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원, 도비 10억원 등을 포함해 48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8484㎡의 구 월야보건지소 부지에 건축면적 988㎡ 규모로 건립됐다.

체육관은 배구코트 1면, 배드민턴코트 4면 등으로 이뤄졌고, 사무실, 샤워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화순군 관계자들이 고인돌오토캠핑장의 31개면 사이트와 족구장 2개소에 강자갈 포설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 당부 장성군, 무료 예방접종 지원

장성군은 전국적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예방접종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급성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는 주로 비말로 전파되고 고열, 마른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세를 보인다.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며 특히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의 경우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으려면 △외출 전·후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밀폐된 공간 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방접종도 중요하다.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무료대상자(65세 이상, 13세 이하, 임산부) 외에 군 자체사업으로 14~18세, 60~64세 군민에게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형은 A형으로 예방접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화순군, 고인돌오토캠핑장 겨울철 시설 정비

화순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유적지 부근에 자리한 고인돌오토캠핑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물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겨울철 비수기를 맞아 진행된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31개면 강자갈 사이트와 족구장 2개소에

강자갈 포설을 완료, 캠핑장 내 연못 2개소에 대한 준설작업을 실시했다.

운재관 고인돌사업소장은 “고인돌오토캠핑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봄에는 조경수를 식재해 휴식 공간을 확대했으며 이번 겨울철 비수기에는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캠핑사이트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 고인돌오토캠핑장은 지난 2022년 개장해 41개 사이트, 족구장, 샤워실, 취사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1만여명이 고인돌오토캠핑장을 이용하고 있다. 화순=김선중 기자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 최종 결정

“민생 최우선”

나주시가 고물가·고금리,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다.

26일 나주시는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등 시의회와 공조를 통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16일 민생대책 긴급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최

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며 분야별 서민 생활 안정 대책 방안을 각 부서에 주문한 바 있다.

나주시는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생산원가 대비 수익이 현저히 낮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당초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을 11.1% 인상할 계획이었

다. 나주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49.2%, 하수도 8.12% 등 전남도 평균(상수도 62.6%·하수도 26.5%)을 밑돌고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심도있게 고려해 시

의회와 공조, 조례개정을 통해 인상 유예 결정을 신속 처리한 것이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인상 유예 결정에 따른 나주시 전체 가구 요금 완화 효과 규모는 약 15억원으로 추산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시기,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내년 하반기로 유예하기로 했다”며 “추후 재정 건전성 차원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소통한 후 요금 현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 화순군, 한파 대비 4241가구 대상

화순군은 26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파 대응 업무체계를 강화하고, 홍보 및 교육 활동 등 적극적인 방문건강관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군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보건지소·진료소 직원 31명이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렵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4241가구의 가정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기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주요 질환별 겨울철 건강 수칙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응급상황에 대비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와 지역별 담당 방문간호사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 한파 특보 발령 시 방문간호사가 안부 전화 및 수시방문해 대상자의 건강 이상 유무도 확인한다. 또 한파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들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으로는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 △실내 적정온도와 습도 유지 △체감온도 확인하기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장갑·모자·목도리·마스크 착용)가 있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건강취약계층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파 대비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예방수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청년 스마트농업 중심지 도약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공모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사업을 통해 삼서·삼계면 일원 13.1ha 부지에 임대형 스마트팜 6.9ha, 스마트팜 융복합단지 6.2ha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공동육묘장,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 가공센터, 체험교육장, 챔버형스마트팜 등을 구축하며 총사업비 391억원 규모다.

전략작목인 장성레몬과 아열대채소를 청년창업 테마로 삼고 단지화·규모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2026년 완공 예정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광주과학기술원, 지역농협과 손잡고 ‘장성군스마트농업육성지구컨소시엄(JSDC)’을 구성해 육묘·재배·유통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경영지원도 펼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레몬가공제품 시장 선도를 위해 ‘K-아열대’ 스마트팜 청년창업 및 수출 플랫폼을 중점 구축할 방침이다”며 “농업·농촌의 위기를 스마트농업과 청년의 힘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